



# 미국 증권사들, 고객예탁금을 활용한 이자수익 제고전략 확대

최근 미국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이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객예탁금을 은행의 보통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올리는 “cash sweep” 프로그램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한편 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이와 같은 수익제고 방안에 대해 고객동의 절차의 부재 및 정보제공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고객예탁금을 은행의 보통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수익제고 전략이 확대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cash sweep”이라 불리고 있는 동 전략은 현재 투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고객의 증권계좌 예탁금을 은행의 예금계좌 등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임.
  -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cash sweep option”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후 배당금, 주식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금, 포트폴리오 전략상 위험분산을 위한 예치금 등 증권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음.
  - cash sweep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sweep account”와 유사한데, 동 상품은 요구불 예금 계좌의 잔고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자동적으로 그 초과액이 MMF 등에 투자되고 반대로 일정액을 하회하면 MMF 등 투자자산에서 자동적으로 예금계좌로 이체되도록 설계된 상품임.
  - 증권사들의 이러한 이자수익 확대 전략은 지난 2004년 6월 연방준비이사회(FRB)가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난 2000년 증권사들 중 가장 먼저 cash sweep 프로그램을 도입한 Merrill Lynch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활용한 이자순익이 2005년 13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20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Merrill Lynch는 가장 적은 소액계좌에 대해 최저 1.51%의 이자를 보장하는 은행 예금계좌에 2006년말 현재 약 780억 달러의 고객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Merrill Lynch에 이어 2005년부터 cash sweep 프로그램을 도입한 Morgan Stanley는 소액계좌에 대해 최저 1.25%의 이자를 보장하는 은행 예금계좌에 2006년말 현재 약 133억달러



의 고객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Wachovia Securities의 경우에는 은행 예금계좌에 예치되는 예탁금의 규모에 따라 10만달러 이하의 계좌에 대해서는 1.0%, 25만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1.3%, 100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해서는 4.0%까지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cash swee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harles Schwab은 고금리의 자사 은행 예금계좌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연계되도록 설계한 “Schwab IOU” 상품을 판매하여 이자수익을 제고하고 있음.

- 한편 Citigroup의 증권계열사인 Smith Barney는 2002~2004년까지 그룹의 회장이었던 Sallie Krawcheck이 cash sweep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연기하여 왔으나, 경쟁사들의 예탁금 활용전략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뒤늦게 도입을 결정하였음.
- Smith Barney는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며, 증권계좌를 통해 고객들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투자대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활용전략은 펀드 운용수수료의 3~4배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이자수익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iMoneyNet의 조사에 따르면 예탁금을 활용한 증권사의 이자수입은 예치액의 약 2~2.5% 수준으로 최근 MMF 자산의 평균 운용수수료 수입 0.5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온라인 증권사들도 수수료 수입보다 고객의 현금계정을 활용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cash swee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증권사들 간에 cash sweep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고객동의 절차의 부재 및 투자정보 제공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2005년 2월 cash sweep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증권계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또한 흔히 증권사들과 거래 은행들 간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cash sweep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제휴은행의 저금리 예금에 고객 예탁금을 예치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시하였음.

- 감독당국의 cash sweep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증권사들이 동 프로그램의 주 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대고객 주의의무에 나서고 있으나, 고객들이 세심히 살펴보지 않는 한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은 식별해 내기 어렵다는 평가임.